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 지난주 잠언과 이어집니다.

1. 뇌는 이른 새벽에 가장 총명하고, 기억력도 이상적이다. 뇌도 육체덩어리다. 어제의 삶으로 피곤했는데 육신이 자고 쉬고 안식하였기에 뇌의 활동이 최고로 좋을 때가 ‘새벽’이다. 이때 주님도 오신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너무 신경 쓰게 하여 뇌를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2.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루 삶에 시달려 뇌가 피곤하여 마음도 정신도 모든 생각도 흐려진 때를 벗어나 ‘새벽’에 찾아오시고 부르신다. 그리고 저마다 원하는 시간을 내 주신다.
3. 좋은 시간을 뺏기고 나쁜 시간에 몸부림치지 말아라. 좋은 기회를 놓치고 힘든 때에 10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4. 노는 만큼, 인생 막연히 지낸 만큼 자기가 뛰고 달려 그 계곡을 벗어나와야 한다. 누가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 주느냐.